

## 2020 국악창작곡 개발 <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심사결과 안내

2020 국악창작곡 개발 '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10월 30일(금),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시상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본 대회에 참가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20년 10월 30일(금) 19:30~22:20 / 국립국악원 예약당
- 심사내용 : 2020 제14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본선진출팀 실연 심사(10팀)
- 심사위원 (\*가나다순)
  - 강은일(서울돈화문국악당 예술감독), 김현철(가수, 음악감독, 에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신창렬(창작국악그룹 그림<The 林> 대표), 윤혜영(아리랑TV 방송본부 제작위원), 이창기(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경영협회 부회장), 주홍미(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최수정(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 심사항목 : 대중성(30점), 독창성과 창의성(30점), 국악의 창조적 계승(20점), 음악의 완성도(20점)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 규정
  - 팀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 투표를 통해 결정
  - 심사회피제도 시행

### □ 심사결과

구분	팀명	곡명	시상내역
대상	groove&	Run, Ran, Run	국무총리상, 상금 1 천 5 백만원
금상	속속곳	Plankton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8 백만원
은상	bob	괘지나 칭칭(ching ching) 나네	국립국악원장상, 상금 5 백만원
은상	온새미로	청청도드리 靑靑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5 백만원
동상	모꼬지	이판사판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 백만원
동상	음악제작소 WeMu	어-허긔짜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3 백만원
장려상	심플	상여가 실은 청춘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장려상	소리양상블 ∞공	아랑가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장려상	천군만마	알라알라성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장려상	FUN 소리꾼	눈치코치	국악방송사장상, 상금 2 백만원

□ 주요 심사평

이름	주요 심사평
강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적인 문화 흐름에 따라 힙합, 트로트, 전자 사운드 등과 접목하여 비주얼과 퍼포먼스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한 팀들이 출전하였습니다. 젊은 에너지들을 모아 무대에서 한껏 흥과 끼를 선보였고 여러 악기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음악적 성장을 보였습니다.</li> <li>-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키우고 새롭게 창작되고 거듭나는 음악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li> </ul>
김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음악적 실력이나 가사의 매무새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수 같은 것은 크게 보지 않았으며 그 음악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큰 맥락을 보았습니다.</li> <li>- 오늘 출전한 팀들 모두 그리 크게 떨지 않고 마치 자신의 방인 것 같이 노래, 연주, 춤, 연출 등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li> <li>- 참가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li> </ul>
신창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년에 비해 노래곡 비중이 높은 전체 구성이긴 하였으나 음악적 다양성에 있어 비교적 다채로운 팀들의 음악이 배치되었습니다.</li> <li>- 판소리 또는 민요를 소재로 만들어진 음악들은 가사의 내용과 음악의 맥락이 함께 하는지 기준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li> <li>- 연주팀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살려 창작된 음악이 오히려 독창성을 살려주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li> <li>- 연주인의 가능성을 새로운 독창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기회의 경연이 되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li> </ul>
윤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렇게 여러 장르의 창작곡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젊은 국악인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한국음악의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li> <li>- 21세기의 종합예술로서 한국음악이 한걸음 나아간 것 같아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li> <li>-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계속 좋은 한국음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li> </ul>
이창기 (심사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음악의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 도전을 엿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출연팀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li> <li>- 각 팀들의 기발하고 재기발랄한 무대연출, 거기에 음악적 완성도까지 더해져 우열을 가리기 힘든 심사였지만, 국악적 전통미, 대중성이나 창작성 등을 보며 심사위원들이 일치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li> <li>- 일부 전자음악과 국악기와의 균형이 다소 어색하거나 이질적인 느낌과 부분들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li> <li>- 올해 경연은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 형태가 더욱 두드러진 종합예술 형태의 패턴을 보였던 게 특징입니다.</li> </ul>
주홍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한국음악계의 흐름에 의한 영향일 수 있겠으나 '혼자 예술'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이 남습니다.</li> <li>- &lt;이날치+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gt;의 영향으로 종합예술 음악, 춤, 만담에 레트로 스타일을 더하는 최근 흐름에 묻어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li> <li>- 아주 독창적이라고 생각되는 팀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li> </ul>
최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팀마다 부분적 아이디어와 개별 작곡가들의 개성, 개인의 기능, 연주력이 돋보이는 무대였으나 지나치게 개별 작곡가의 개성이 앞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 아쉬웠습니다.</li> <li>-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악가무의 종합적인 구성의 색채감이 드러나는 전통의 힘이 느껴지는 창작곡들이었습니다.</li> <li>- 전통의 소재를 활용한 대중성에 대한 적극적 고민의 확장성을 보는 무대였습니다.</li> </ul>

□ 문의 :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운영사무국 (02-300-9973)